

강령

-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전국 02-675-9068 (FAX: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 634-4359) 충주 0441-42-1217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창 0551-48-6264 (FAX: 0551-43-6496)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4-5116

## 교육환경 개선 개혁의 첫걸음

### 교육시민단체 교육개혁에 대한 입장 표명

지난 6월 24일 탑골공원에서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교육 시민모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 16개 단체)는 정부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에 대한 입

장을 시민들에게 홍보 했다. 그리고 이날 참가자들은 교육재정 GNP 5%를 우선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첫 걸음이 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은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입시 경쟁을 부활시킬 수 있으며 과열과외, 학연으로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교입시

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종합생활기록부제는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에 이르는 과밀학급 상태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 이전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줄여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안에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심의 내지 자문역할에 그치는 것은 바른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학교자치기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스스로의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에서는 5.31 교육개혁안이 국.영.수 중심의 대학본고사의 폐지와 현행 서열식 내신제도의 폐지,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고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대학교육의 재편 등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시행과정에서 굴절되지 않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공청회 개최

참교육 학부모회는 7월 11일 오후 2시에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학부모의 민주적 학교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오성숙(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씨의 주발제를 통해 「5.31 학교운영위원회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학교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정착을 위한 제안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종합토론자로는 유현숙(한국 교육개발원), 최충욱(교육

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윤철경(이화여대 강사, 한국 교육연구소 연구국장), 허명화(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공동대표), 교장, 교사 각1인이 참석한다.

또 우리나라 및 외국에서의 학교 참여경험에 대한 구명희(한국), 신호중(미국), 안세진(캐나다), 김정숙(독일)씨의 발표를 듣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의 다양한 학부모 참여방안을 제안한다.



-5.31 교육개혁안에 대한 입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학교 자치기구가 되어야 한다.

주요 기사	3면	방학 중 효과적인 독서지도
	4면	학교운영위원회
	5면	도서관 이용 안내
	7면	여름방학 캠프안내

몸도 쑥쑥, 마음도 쑥쑥 - 우리교육 '쑥쑥문고'

## 점박이와 운전수 아저씨



.....  
손순익 창작 동화집

「점박이와 운전수 아저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동문학가 중의 한 사람인 손순익의 창작 동화집입니다. 개구리 점박이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운전수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점박이와 운전수 아저씨」를 비롯해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꽃씨와 봄」 등 여기에 실린 12편의 동화는 우리의 아이들을 자연의 품 속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 사설

## 교육자치, 활발히 참여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4대 선거가 모두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막이 올랐다. 아울러 현행 교육자치법에 의해 구성된 교육위원회도 8월 말로 제 1기가 끝나고 9월이면 새롭게 2기를 구성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얼마남지 않은 제 2기의 구성을 놓고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성방향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더구나 독립된 의결기구로서의 권한은 고사하고 일반행정과 의회에 예속된 형태의 '교육위원회'를 구상한다고 하니 발달해야 할 교육자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는 지방분권의 원리, 국민통제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교육자치는 그야말로 허점 투성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자치를 이루어 내려면 교육재정의 지방자립도를 높이고, 광역자치단체에만 허용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을 기초단위와 학교 단위에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위원의 자격제한을 조절하여 교육 주체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이중 간선제인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함을 물론 이런 모든 논의가 교육주체들의 참여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 제도마련시급

교육부는 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연구시안을 토대로 7월중 시행안을 확정 한뒤 올 2학기부터 모든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설치하려던 학교운영위원회를 각 지역마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한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교육의 주체임을 선언하며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한다고 계속 요구해 왔다.

그리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큰 기대를 가져왔으나 이번 개혁안에 들어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기부금 관련사항과 사교육비 지출비용 결정 및 징수 등에만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육성회, 어머니회가 담당했던 교육재정의 후원자 역할에서 벗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부족한 학교재정을 조달해오는 역할을 합법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각 구성원들의 조건과 활동 양상을 혁신할 제도적 장치와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는 96년도로 예정된 복수지원제의 재력있는 학부모들의 비교육적 요구가 공식적으로 교육현장을 옥죄 질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내려면 학교단위에서부터 철저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학부모대표와 교무회의를 통해 선출된 교사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공립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까지도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교육부, 하이텔에 [열린마당] 개설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는 6월 5일, '5.31 교육개혁안'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및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하이텔에 전용 온라인 통신망을 개설했다.

'교육부 열린마당'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코너 등 6개 코너로 구성되며 다양화되는 대입시제도 등을 소개하는 한편 교육관련 소식 및 행사, 해외 교육정보 등을 담아 제공한다.

'교육부 열린마당'에 들어가려면 하이텔에 접속한 뒤 'GO MOE'를 입력하거나 '초기화면→12, 여론광장→13, 교육부 열린마당' 순으로 화면 선택을 하면 된다.

교육개혁안 관련 내용은 하이텔에 개설된 교육개혁위원회 전용「교육개혁위원회 열린마당」(GO PCER)이나 「청와대 큰마당」(GO BLUEHS)에 접속하면 된다.

## 교육부, 교과서 성편견 바로 기술

교육부는 5월 25일 6차교육과정에서 따라 개편되는 새 교과서에서는 남녀의 등장비율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균형있게 표현하는 등 기존 교과서에서 성편견을 부러일킬 수 있는 내용을 바로잡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올 9월부터 배포되는 국민학교 1,2학년용 2학기 교과서와 내년부터 사용되는 3,4학년 교과서, 중·고교 새 교과서에 이러한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 유아교육학회, 5세 아동 취학안 유보 요구

한국 유아교육학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6월 8일 YMCA 강당에서 '국민학교 입학연령 탄력적 운영'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의 교육개혁안 가운데 '5세 아동 선별 취학안'이 아동의 성장단계를 무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을 바라는 부모들의 조기교육 열풍을 부채질하는 등 유아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과정을 공교육 과정에 편입시켜 유아의 인성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선별 입

### 학부모 만평

이숙자



## 아이들을 자연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줄 실험 학교 이야기

만 2년 동안 월간 우리교육에 연재되어 신선한 충격을 던졌던 윤구병 선생님의 실험 학교 이야기가 드디어 책으로 나왔습니다.



### 실험 학교 이야기



윤구병 지음/값 6,500원

### 실험 학교 이야기 - 새로운 공동체로 가는 길

학부모, 교사들과 더불어 우리네 삶과 교육을 늘 고민해오던 윤구병 선생님이 내년에 대학 선생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러 떠납니다. 변산 언저리에 마련한 조그마한 터에서는 듬직한 젊은이들이 벌써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일하고 놀며 생명의 문화를 꽃피울 새로운 학교와 생산공동체의 터를 닦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학에 아이들에게 권할 만한 책

#### 엄마의 런닝구

생활에서 우러난 진솔한 느낌이 살아 있는 아이들 시집이다. 이 시를 보면서 아이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도 시를 쓰게 될 것이다.

한국글쓰기연구회 엮음/값 4,000원

#### 왜 나를 미워해

몸이 불편한 한 아이의 가슴앓이성 장기록이다. 실제 기록인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 준다.

요시모토 유키오 지음/값 4,000원

#### 새물이나 함께 일기 쓰기

국민학교 아이들이 일기 쓰기에 자 신감을 갖도록 해 주는 책이다. 일기하면 두손 드는 아이나 학부모가 함께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세훈 글, 이성인 엮음/값 4,000원

### ■ 방학 중 효과적인 독서지도

# 도서관 독서교실 이용도 좋을 듯

요즘 논술고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교육의 방향이 창의력과 사고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학부모들이 문제집 풀이보다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야 한다'는 생각이 커진 것 같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책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주어야 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 부모 세대가 어릴 적에는 책이 없어서 지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으나 요즘에는 책방에 가보면 넘쳐도록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결만 보아서는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이다.

더구나 어린이를 위한 단행본 도서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80년대보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양적으로는 도서의 양이 늘어났으나 오히려 질적으로는 더 형편없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는 게 아동문학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의 지적이다. 한번 읽고 버릴 즉흥적인 오락물들이 아이들의 독서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도서 대여점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

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체인점으로 구성되는 이들 대여점엔 어린이 도서의 절반 이상이 질이 형편없는 만화이며 겉포장만 화려한 명랑동화나 귀신, 공포물 시리즈로 책장이 가득 메워져 있다.

강서구 등촌동의 이호영씨는 '마침 아파트단지 상가에 도서 대여점이 생겨 책을 좋아하는 4학년짜리 딸에게 책을 사주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 5천원을 내고 회원 등록을 했으나 읽힐만한 책이 없어 한두 번 이용하고는 발길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서점에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안양시 석수동에서 3서점을 경영하는 이아무개씨는 "좋은 책은 늘 아이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을 해 놓는데도 별로 좋지 않은 책들만 골라가서 무척 안타깝다"고 하며 그냥 아이들에게 돈만 주고 책을 사 보라는 부모들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막상 부모가 함께 와도 어떤 책이 좋은 건지 잘 몰라 아이들 스스로가 고르는 대로 맡겨두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좋은 책 목록이라도 만들어 권장 해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책을 골라주어야 하는 지 알려주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 그냥 내 아이가 책을 잘 읽는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닌 것이다. 올바른 독서교육은 도서선택으로부터 시작되고 도서선택이 잘되면 독서교육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여름휴가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방학동안 책을 많이 읽게 해주는 것도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책을 보라고만 한다가나 책을 읽더라도 무슨 책을 보는 지 그지 방지해두기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능력과 특성에 맞는 독서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4학년, 6학년 두 딸을 둔 서인숙(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는 방학마다 아이들과 하는 독서방법의 성공 사례를 이렇게 소개한다.

- 아빠, 엄마를 포함한 네 가족이 20번까지 적힌 독서방 일지를 만든다.
- 각자 책을 한 권씩 읽은 후에는 일지에 기록을 한다.
- 주말에는 자기가 읽은 책 중 한 가지씩 골라 대화를 나눈다.
- 20권 읽을 때마다 포상을 하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적당한 금액을 함께 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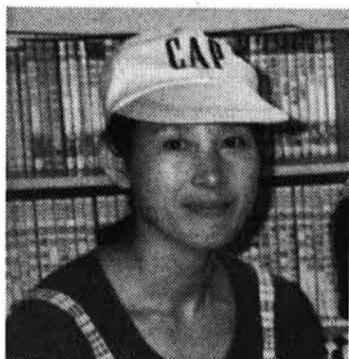
원하는 물건을 사주거나 외식을 시켜주고 부모의 경우는 집안 일을 대신 아이들에게 시킨다.

- 엄마의 경우는 아이들이 읽는 책을 모두 읽되 아빠도 일 주일에 한 권은 반드시 아이들이 보는 책을 읽는다.

서인숙씨는 3년째 이 방법을 써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권수를 채우려고 건성으로 책을 읽기도 했으나 점차 책에 대한 재미가 늘어 이제는 방학마다 대개 사오십권 정도의 책을 읽게 되며 부모의 입장에서 읽은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인성지도도 할 수 있고 아이들과의 벽을 좁히는 데에도 한 몫을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주어야 하는 지 그 방법을 잘 모를 땐 전문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10년 넘게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올바른 독서 지도법을 연구해 온 어린이도서연구회(02-733-4992)에서는 그림책부터 국민학교 각 학년별로 100권씩 모두 700권의 좋은 책을 소개한 '어린이를 위한 권장도서 목록'이 마련되어 있고 각 공공도서관에서도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5면 참조) 또 참교육학부모회(634-6508)에서도 지회별로 방학동안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좋은 어린이도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조봉호 기자)



### 강서남지회 오명숙씨를 찾아...

서울을 벗어나 길가로 펼쳐져 있는 논을 따라 시외로 달렸다. 마을의 뒤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는 김포의 작은 아파트 촌의 노인정. 이곳에서 오명숙씨를 만날 수 있었다.

1990년 학부모회에서 주최하는 '찾아 이 학교보내기' 강좌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돼 학부모회 활동을 시작한 오명숙씨는 지금은 강서남부지회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김포에서 작은 도서관인 '책나눔'을 꾸려가고 있다.

"책나눔은 95년 5월 6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읍에 있는 '김포 책나눔 본부'에서 책을 빌려다 보았는데 그곳에서 책을 기증받기로 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노인정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지요."

서울이나 도시의 학교들과는 달리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하나도 없고,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읍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과 접할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다고 한다. 마침 책나눔 본부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제의를 해와 아이의 학교 어머니회에 참가하여 책나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 아파트안에서도 설문조사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렸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분

과로 나누었고 하루에 3시간씩 분과별로 활동을 한다. 분과별 활동은 주로 학교나 학원에서 할 수 없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한다. 월요일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만들기를 하고, 화요일에는 국민학생들이 종이접기를, 수요일에는 전통놀이, 목요일에는 글쓰기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린이 자치의 시간이 있다. 이 모임활동을 위한 준비물은 주로 집에서 어머니들이 준비를 해주거나 폐품을 활용하고 자연에서 얻는 재료를 사용한다고 한다.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체계도 잡히지 않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동도서 위주로 기증받았는데 종류도 많지 않고 책의 내용이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곳에는 기존에 있던 새마을 문고가 잘 활용되지 않아 그곳에 있던 책과 주민들이 기증한 책, 책나눔 본부에서 기증받은 책 등 모두 1,300여 권의 책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기대한 것보다는 주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무료로 책을 대여하는 일만 하고 있다.

앞으로 책을 관리하거나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운영비도 적지않게 들 것 같다. 건물 관리비는 관리실의 도움으로 걱정이 없지만,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운영비를 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올 여름에는 소식지 '좋은 자리'도 발간할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준비하는 연극도 공연하고 어머니들이 인형극도 준비해서 곧 공연할 겁니다."

아이들과 물놀이를 함께하고, 모닥불을 피워 감자굽기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런 활동이 전국적으로 많아져서 함께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오명숙씨는 글쓰기를 지도하려 아이들에게로 갔다.

(김은주 기자)

## 편지글

내가 여름방학때에 가고 싶은 곳은, 예수육장, 시골, 수영장, 캠프장 등이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튜브를 타고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것이다. 또 시골에 가서 원두막에 올라가서 수박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1시에서 3시에 끝나는 바둑학원에 다니고 싶다. 안되면 피아노학원에 다니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학원을 한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서 학원을 다니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학동안에 두가지 사고 싶은게 있다. 한가지는 미니카 또 한가지는 롤러브레이드다. 미니카로는 경주를 하고 롤러브레이드는 내 친구들과 타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 방학은 캠프로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서울 지현국민학교 2학년  
조남익



형과 함께 여름방학을 기다리며...

◆ 5.31 교육 개혁안 — ①

#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 대안의 하나로 올해 9월부터 개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를 의뢰, 지난 20일 학교운영위원회 시안이 마련되었다.

### 교육개발원 시안

교육개발원의 시안에서 학교운영위의 구성은 학부모 40%, 교장·교사 30%, 지역인사 및 교육전문가 30% 등 10-20명 규모이며 부모 교사 위원은 투표로 기타 위원은 선출위원이 위촉할 수 있게 하되 교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교사 학부모는 국교 2년, 중·고1년(1회연임)이며 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지역인사 및 교육전문가는 2년(1회연임)이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관리, 학교발전기금 조성·관리, 방과 후 특별활동실시, 교장·교사추천위 구성 등은 운영위의 의결사안으로 ▲학교예·결산, 학교현장·규칙제정, 방과 후 과외 프로그램 선택, 선택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선정, 종합생활기록부 공정기재, 만 5세 아 취학여부, 월반·속진 대상선정, 학생 대표청원사항 등은 심의, ▲도서 및 교복선정, 급식운영, 방학·운동회 시기결정 등에는 자문기능을 갖도록 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최고의 권리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교육에 대한 동등한 권리자로 인식되지 않았던 학부모에게 처음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학부모는 어떻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미



20-30년 전에 학생·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법제화된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교육 현실에 적합한 교육참여 방향을 생각해보자.

### 선진 외국의 사례

미합중국의 헌법은 교육제도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권한만 갖고 있다. 세세한 사항은 50개 주의 역사적 배경, 지역적 사정, 주민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르다. 미국의 학교는 지역주민의 고정재산세의 일부를 교육세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는 지역 주민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학교는 학부모에 대해 철저하게 저자세이다.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는 협의체나 후원회, 학부모 자문회, 학부모·교사협의회(PTA) 등이 있다. 학부모·교사협의회는 학교의 교육정책, 학부모의 관심 제안, 특별활동 프로그램, 학생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명예교사, 도서관 운영, 그의 학교행사 등에 참

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학부모들이 내는 후원금은 학교 전체의 예산에 포함되어 운영되므로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강제성도 없다. 대부분 학부모들은 10-50 달러 정도의 소액을 내는게 일반적이다.

영국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활동은 크게 학부모 독자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 참가로 나눌 수 있다. 1970년대 소비자 운동에 영향을 받은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교육소비자임을 자각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활발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제도화한 1986년 교육법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교육과정제정 교직원, 학교의 규율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들은 교육과정의 자료와 강의계획표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운영 위원들은 모든 학부모들에게 그들의 활동을 연간 보고서를 통해 알려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연례적인 모임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은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학부모, 지방 교육청이 동수로 참여하고 이보다 적은 수의 교사(교장을 포함할 수 있다)와, 통제학교의 경우는 재단이사과 호선위원이 참여하며 군립학교와 관리학교의 경우는 호선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다.

독일은 1970년대와 73년에 독일 교육심의회가 교사, 학생, 부모, 삼자에 의해 담당되는 학교자치강화와 교육행정 참가를 권고하고, 1993년 이후 계속하여 이러한 참가법제가 정비되었다. 참가법제에 따른 독일 학부모의 참여제의 특징은 '학교협의회'이다. 학교협의회는 주마다 구체적인 것은 다르지만 보통 모든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교사 학생 부모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학교의 중심적인 심의 결정기관이다. 독일 최대주인 닐트라인 비스트비켄의 경우 학부모 대표 5명, 교사대표 6명으로 구성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 대표수가 줄어들고 학생 대표수가 늘어난다. 학교협의회는 규칙의 개정 교과서 및 그의 교재의 결정, 교장 임명의 발언,

일반적인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제안, 수업참관, 부모면담실시에 관한 규칙제정 등을 한다.

### 교사·부모의 반응

내년 부터 본격 시행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실제 기능에 대하여 관악중 한민중 교사는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체제 등을 고려할 때 운영위는 주로 학교 발전 기금 조성 과 방과후 교육활동 실시 등이 주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운영위원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게 될 지역 동문들의 역할이 주로 (명문고 만들기)로 모아질 것이며 이는 "치열한 입시전쟁터를 원하는 재력있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공식적인 외피를 걸치고 교육현장을 옥죄어 올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영등포구에 사는 김혜순씨(중·고 학부모 40세)는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운영위의 제도화를 적극 지지하며 주변에서 우려하는 소위 치맛바람에 대해 "운영위가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하고 투명화시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늘리려는 노력없이 단순히 학부모의 재정지원에만 기대 목적으로 운영위를 만들었다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이며 이는 결국 교육 개혁이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악구에 사는 은미숙씨(초등 학부모 35세)는 "30여년만에 맞는 교육자치의 장에서 학부모에게 주어진 교육참여 권한이 잘못된 교육관을 가진 학부모들의 부당한 교육간섭으로 발전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학부모는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동반자적인 역할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명희 기자)

## 지자체 선거보도 총평

방송개혁국민회의의 선거대책본부 방송모니터팀의 일원으로 참교육학부모 모니터팀이 참여하여 5월 중순부터 6월 26일까지 MBC 저녁뉴스를 모니터 하였다. 다른 모니터팀과 함께 분석한 결과 방송 3사의 뉴스흐름은 비슷하였다.

불공정보도 유형분석과 전체 선거방송을 분석한 결과 첫째, 과거 선거보도처럼 정

부여당에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던 것에 비해 양적 불공정은 크게 두드러지는 않았지만, 영상편집의 편파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여당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깨끗한 화면, 정책 위주의 공약과 대안제시를 인용한 반면, 야권후보에게는 불안정한 화면과 발언시 마이크 상황이 안좋아 말이 제대로 안들린 점, 일상적 사안이

나 지역감정을 언급하는 말을 이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뉴스의 의제설정에서 불공정 편파성을 지적할 수 있다. 집권여당에 유리한 기사는 부각시키고 불리한 기사는 축소했다.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은 며칠간 긴 시간을 할애해 방송한 반면, 부산 진구정의 후보동향 보고서 작성, 정원식 후보의 자원봉사 신청서 대기업 무더기 배포사

건, 인사변의원이 경기지사 경선에 대한 불만으로 출마한 사건 등은 슬그머니 묻혀 버리고 말았다. 정부의 선심성 공약, 김대통령의 동정도 하루에 2개 이상 빠지지 않고 보도되었고, 북한 쌀제공, 김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 발언 내용은 연일 크게 보도된 점 등 구태의연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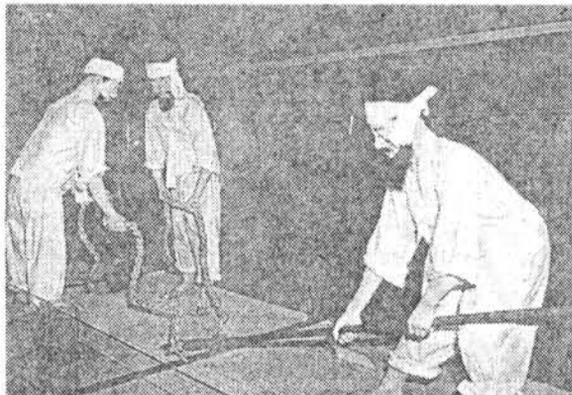
셋째, 지역감정,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보도 태도이다. 34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의의와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여 언론이 선도적으로 유권자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감정에

대하여 언론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들의 지역감정 발언에 대해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었고, 선거운동 타락상을 발굴 취재하여 올바른 선거풍토를 조성하려는 노력없이 일회성으로 보도상품의 가치로서만 취재되었다. 선거를 정당간, 후보간에 정책대결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적대적 싸움으로 바라보게 하여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 무관심을 부추기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장은숙 문화국장)

◆ 박물관 순례-(5) 농업박물관

# 농경문화에 깃든 오천년 조상지혜



농업사 연표가 있다. 이 표를 보면 BC 1400년 경에 조와 피를 경작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오희 농사가 시작된 것

파종, 수확도구, 저장도구, 계량도구와 축산도구까지 발달되었다. 농사에 있어 수로가 중요시 되면서 수로시설 기구로 무자위, 용두레같은 기구가 쓰였다.

네번째 농가 월령가실에는 일년을 12개월로 풀어내어 노래 부르던 농가 월령가에 따라 농사 풍습과 기구들을 함께 볼 수 있게 전시 되어 있다.

다섯번째 전시관인 농기구 분포실에는 낫, 호미, 쟁기와 같은 기구들을 각 지역별로 정리해 두었고 절구, 가래, 낫, 썰레 등 생활용품도 종류별로 전시가 되어 있다.

여섯번째로 협동 유적실이 있다. 농번기에 서로 도와 농사를 짓던 계나 두레란 것이 있었다. 말하자면 공동체 같은 것으로 함께 모를 심고 수확을 했다.

일곱번째 전시실은 현대 농업실로 농산물의 각 품종을 전시해 놓았고 현대식 농기구인 트랙터, 콤팩트 등을 진열해 놓았다. 이곳에서는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데 품종 개량을 위해 유전공학의 중요성과 인구증가와 토지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화의 물결로 밀려난 농경문화의 남겨진 유물에서는 농경국가를 이끌어 온 조상의 빛나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

이 박물관은 일요일과 공휴일 국경일을 제외하고 일년내내 열려 있다. 관람 소요 시간은 1시간 가량이며, 관람료는 어른은 300원, 어린이는 150원이다.

(김해순기자)

서울 한복판에 놀랍게도 농업 박물관이 있다. 중구 충정로에 있는 이 박물관은 1987년에 농업협동중앙회에서 설립 개관하였다. 3개층으로 되어 있으며 건평이 1000평이나 된다. 이곳에 전시된 농기구 유물들은 1600여종이 넘는다.

전시된 유물들은 단위농협들이 수집 한것으로 시대별 용도별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 고증자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조상은 선사시대 부터 농경문화를 지켜왔다. 또한 농사일을 귀하게 여기고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 왔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되면서 농사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지도 희박해졌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농경문화의 유산을 수집 보존하여 조상의 지혜를 배우고 애농 혹은 숭농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로 세운, 이 전문 박물관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오천년의 농경문화의 모든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박물관에는 7개의 전시실이 있다.

첫번째로 선사 시대실에 보면

은 BC 700년이라고 써여있다. 이 시대의 농기구는 주로 돌이나 나무였으나, 청동기시대에 이르러서는 마제 석기가 주를 이루었다는 걸 유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또 청동기 시대에는 때비라는 과학적이고 대형화된 농기구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때비도 조선시대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비교적 과학적인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의 삼국시대실에서는 고구려 시대(375년 경)에 디딜방아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으로 대량생산 가능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가축을 이용하여 짐을 나르거나 농사일을 하는 우경농사가 시작되었다. 삼국에서 쓰인 향아리중 백제의 그것은 크게 보인다. 넓은 평야에서 나는 풍부한 곡식을 보관하려면 우선 그릇이 커야했던 것 같다. 그외에 나래, 때비, 쟁기, 썰레등을 썼고 양잠을 한 흔적을 남아 있는 쇠화덕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세번째로 고려·조선실이 있다. 이 시대에는 농사 도구들도 다양해져서 굴지, 경운도구와

## 공공 도서관 문화강좌 여름독서교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책을 통한 정보제공 외에도 주부, 어린이 대상의 각종 문화 강좌가 열리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 중에는 국민학생(남산 도서관은 중학생까지)을 대상으로 한 여름독서교실이 마련되어 있다. (송주비기자)

지역	도서관명	위치 전화	연중문화강좌	여름독서교실
서울	정독도서관	종로구 화동 734-5368	영어, 중국어, 일어	7.20~7.26
	용산도서관	용산구 후암동 754-3612	서예, 영화음악감상	7.18~7.25
	목동도서관	양천구 목동 643-3806	일어, 서예, 꽃꽂이, 구연동화	7.18~7.25
	종로도서관	종로구 사직동 738-5097	외국어, 서예, 묵화, 도예	7.18~7.24
	동대문도서관	동대문구 신설동 238-4874	일어, 꽃꽂이	7.18~7.24
	영등포도서관	영등포구 당산동 676-8884	일어, 한문, 서예, 어린이영어교실	7.19~7.26
	어린이도서관	종로구 사직동 736-8912	일어, 서예, 사군자, 동극, 종이접기	7.19~7.25
	도봉도서관	도봉구 쌍문동 906-2668	영어, 일어, 서예, 사군자, 꽃꽂이	7.19~7.26
	강서도서관	강서구 등촌동 653-1233	한문, 서예, 묵화, 꽃꽂이, 노인교실	7.18~7.25
	개포도서관	강남구 개포동 573-7235	영어, 일어, 꽃꽂이, 예절 '엄마랑영어교실' 레크레이션	7.19~7.25
	강동도서관	강동구 길동 483-0178	영어, 서예, 묵화, 꽃꽂이	7.24~7.29
	고덕도서관	강동구 고덕동 427-2946	영어, 일어, 수지침, 꽃꽂이, 가요, 한문	7.24~7.29
	서대문도서관	서대문구 연희동 333-3159	한문, 서예, 동양화	7.24~7.29
	고척도서관	구로구 고척동 615-0527	일어, 수지침, 기타, 서예, 꽃꽂이, 레크레이션	7.18~7.24
	중계도서관	노원구 중계동 979-1744	외국어, 한문, 서예, 동양화, 꽃꽂이, 바둑	7.18~7.25
경기	강남도서관	강남구 삼성동 546-8571	외국어, 서예, 동그라미독서회	7.20~7.28
	구로도서관	구로구 구로동 861-6493	서예, 꽃꽂이, 한문, 아트플러쉬, 국민학생한문	7.20~7.27
	동작도서관	동작구 노량진 823-6418	영어, 일어, 서예, 묵화, 꽃꽂이	7.20~7.27
	송파도서관	송파구 오금동 404-7914	서예, 동양화, 꽃꽂이, 영어, 일어, 수지침, 한문	7.18~7.25
	남산도서관	용산구 후암동 754-7494	아동미술전	7.21~7.29
	오산도서관	오산시 청학동 72-4198	비디오학습교실, 어린이영어, 수영	
성남도서관	수정구 신흥2동 734-3486	서예, 한문		
과천도서관	과천시 별양동 503-2992	서예, 꽃꽂이, 동화구연		

## 교육개혁안 반응 교사설문

이 통계자료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 대해 현직 선생님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교육개혁선언 서울교사모임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지역교사 30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425부의 설문지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 6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개혁안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의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모집단으로 해서 지역별, 급별로 5백11명을 무작위 표본추출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육개혁안'에 대해 63.2%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교사들의 이견 반영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1.6%만이 '반영했다'고 답했을 뿐 '반영하지 못했다'(49.2%)와 '그저 그렇다'(39.1%)는 부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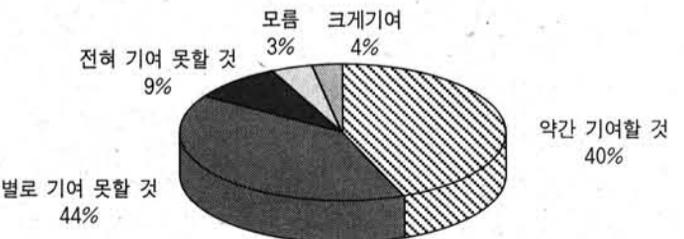
'종합생활기록부'의 도입에 대해서는 51.2%가 '형식적인 평가가 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종합생활기록부의 정착을 위해서는 52.3%가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가 선결과제'라고 답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체로 반대가 29%, 그저 그렇다가 15%, 대체로 찬성이 25%, 적극 찬성이 4%로 나타났다. 적극 반대는 2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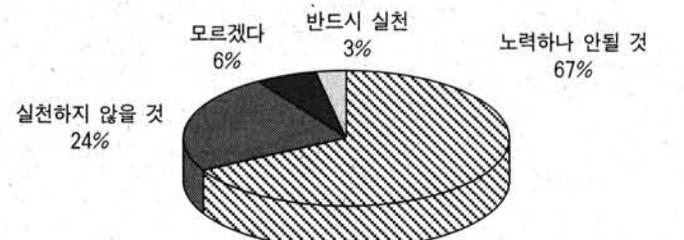
특히 정부가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대비 5%로 늘리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실천될 것'이라는 응답이 24.8%인 반면 '실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1.2%, '모르겠다'는 응답은 24.3%로 나타나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교육개혁안이 교사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가 52%, 그저 그렇다가 23%,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가 20%로 나타나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1. 종합생활기록부가 학교교육정상화에 어느정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2. 정부가 GNP 대비 5%로 교육재정을 늘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해체된 가족

어젯 밤에 작은 울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에 혼자 있다보니 내 소식이 궁금하기도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한다. 나도 혼자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우리 둘은 나이도 비슷하고 아이들도 나이가 같아 공통된 얘기거리가 많은 편이다. 그집은 딸만 둘이고 우리집은 아들 둘이지만 이시간에 아이들이 집에 없고, 남편도 아직 귀가하지 않아 혼자 있어야 하는 처지는 같다. 또 그집 딸들은 강남에 있고 우리아들은 강북에 있지만 모두 집에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네명의 아이들은 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교육 개혁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으니 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 아이들은 여전히 공부에 매달려 있고 여전히 시간이 없다.

아이들은 아침 일찍 학교로 가서 오후 4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 온다. 완전히 지쳐서 집으로 돌아 온 아이들은 씻기가 무섭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는다. 왜냐하면 잠시후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아침 일찍 집에서 내보낸 아이들에게 잠시 간식을 먹이고 나면 다시 학원으로 가는 아이의 등을 보아야 한다. 이런 일은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 가고 나면 시작되는 것 같다. 물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되지만 주위의 아이들이 모두 학원에 다니는 것을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고, 지금의 교육환경 아래에서는 아이나 엄마나 어쩔 수가 없다. 엄마의 강요로 학원에 다니는 아이도 있지만 아이 스스로가 학원에 다니기를 원하는 일도 많다. 엄마가 보내는 걸로 시작을 했거나 아이의 요구로 시작을 했거나, 도중에 엄마가 그만 두게 하고 싶어도 아이가 그만 두려고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다보면 모든 과목에서 학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만 두게 되면 남에게 떨어질까봐 불안해한다. 어디서나 경쟁심을 유발시키기때문에 남보다 잘해야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린다.

엄마는 아이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와도 저녁 식사를 한 후에는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하기때문에 아이들은 다시 자기방으로 들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맛 있는 간식과 영양이 있는 식사를 하게 해주는 일 뿐이다. 엄마나 아이들은 다 서로에게 시간을 줄 기회가 없다. 그래서 나의 경우를 보면 아이가 어쩌다 얘기를 하고 싶어하면 새벽 한두 시까지 마주 앉아 있기도 한다.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실컷 얘기를 하고 나면 아이는 시원해하는 얼굴이 된다.

한창 일 할 나이인 남편은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는 일이 많고 아이들은 학원에 있어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시간이 없다. 저녁 내내 엄마는 혼자 있어야 한다. 울케와 나는 이런 것이 가족해체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며 쓸쓸하게 웃곤한다. 물론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시기도 아닌데 가족이 다 흩어지고 있다. 부모와 아이가 같이 누려야 할 시간이 너무 빨리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아이나 부모나 모두가 이런 생활을 바라고 있지 않는데 현실은 여의치 않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것인가?

이제 교육이 바뀐다고 한다. 우리 아이 또래는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교육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아니 바뀌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함께 정을 나누고 서로를 바라 볼 시간을 주어야 한다.

(김해순 여의도)

## 바른 길 가기

학부형이 된다는 설레임과 함께 내 책상 위에는 어느 박사의 어린시절 이야기, 무슨 무슨 학습법, 아이는 이렇게 키워라, 아이들에겐 00가 좋다... 하는 등의 자녀교육 지침서 같은 것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 많은 책들을 다 읽고,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킨 지 1년 반이 지났다. 지침서대로, 교육 이론대로 키워 보겠노라고 나름대로 아무진 다짐도 해 보았다. 하지만 세상에 던져진 나의 아이는 가정과 밖에서의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르게 요구되는 행동들로 심한 갈등을 겪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방에 들어앉아 책만 보는 것으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한 듯 했다.

순간,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하나 바르게 키운다고 - 그렇게 하기도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어렵긴 하지만 - 되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라 나의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아이를 기른다는 생각에 동지들을 찾았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부형을 찾아 서로 생각을 나누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사회가 변해줄길 기다리기에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아이는 점점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학부형은 모두 내가

건전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는 인정하지만 그 자신이 나와 같은 노선(?)을 걷는 데는 웃으며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교육 제도나 사회의 인식이 바뀌길 기대하면서도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선두가 되는 건 꺼리는 것이다.

이제, 나의 아이와 나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새로운 것도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이 생각 변함없이 지켜지기만 하면 된다.

가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고, 부당함이 눈에 보일 때면 '세대와 타협을 할까', '그냥 나도 따라 갈까'하는 갈등도 겪지만 이젠 바로 서서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참교육 학부모회'라는 나의 새로운 동지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막내 줄에 서서 선배들의 뒤를 망설임 없이 따라가고자 한다.

(신귀순, 관동지회)

여성문화 예술기획에서 7월3일부터 9월25일까지 여름강좌를 개최한다.  
 ○ 문화정치학-페미니즘의 지평에서  
 ○ 여성문화론-80·90년대 여성작가 읽기  
 ○ 여성 취업을 위한 문화 현장교실  
 ○ 신청 및 문의:762-6038, 6048

## 냉담한 학부모들

선거 열풍이 한창일 무렵 참교육 학부모회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온 학교급식의 실시를 위해 전국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 급식조례제정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뛰었다.

특히 인천지부의 회원들은 급식실시에 대한 기대가 남들보다 더욱 컸다. 구 의회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하느라 입술이 부르튼 임원도 있었고, 여기에 같이 힘을 쏟은 인천의 몇몇 학교의 학부모들도 동분서주하며 뛰어 결국 선거 후보들의 공약사항으로 약속을 받기에 이를 때까지 인천의 참교육 학부모 회원들은 가슴을 졸이며 이번 선거의 결과를 지켜 보았다. 결과는 앞으로 인천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대를 걸어볼만하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일은 젓혀두고 간담회, 강연회, 공청회, 후보자 공개토론회 등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연대활동을 위해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그들 모든 단체와 학부모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학교급식 실시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확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인천의 모든 학부모들로부터 얻게 된 것은 참교육 학부모회의 그동안 활동의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에 반드시 좋은 면만 기대하기

엔 아직 이른 것 같다. 일반 학부모들(그저 아이의 학교성과와 남들보다 뛰어나기만을 기대하는 학부모)의 반응이 냉담하기 이를 데 없음을 보았기에 아직 할 일이 많음을 깨닫고, 어깨가 무겁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설문조사는 내 개인 신상에 지장을 갖고 올 것이라는 거부감을 갖고 우리 아이는 급식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니 나는 관심이 없다든가, 우리 학교는 이미 급식을 실시하고 돈도 다 지불했으니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의 답변을 들을 때는 난감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이렇게 이기적일까?' 백년을 바라보아도 모자라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안이하고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는 아직도 참교육 학부모회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급식 실시를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대로 의무교육으로서 반드시 국가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학부모들은 이의 실시를 위해 책임있는 주장과 함께 감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를 갖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하겠다.

(박인옥 인천남동구)



△ 야! 나 방아깨비 잡았다  
 아이들의 신나는 여름은 풀밭에서 익어갑니다

▶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⑩

# 자녀 문제행동 비난말고 나의 느낌 정확하게 전달



소가 중요 합니다. 아이는 어마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 때문에 엄마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피아노 치는 행동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나 전달법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의 세가지 입니다.

1. 자녀의 행동에 대해 비난이나 비판없이 단순하게 지적 합니다.
2. 그 행동에 대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전달 합니다.
3. 그 영향에 대해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 줍니다.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거실에서 아이가 긴 막대기를 휘두르며 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잘못해서 장식장에 놓여 있는 귀한 도자기를 깨뜨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영식아, 너는 맨날 거실에서 그러구 놀면 어떡하니? 저기 깨뜨릴까봐 불안하네.”

어머니의 이 말에서는 나 전달법의 3요소 중에 문제 행동과 느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으나 그 영향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 다. 더구나 행동에 대해 비난과 비판의 말(맨날...) 이 들어 갔기 때문에 올바른 나 전달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의 예문을 나 전달법으로 고쳐 보겠습니다.

“니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놀다 도자기를 깨뜨릴까봐 불안해서 걱정이 된다. 저 도자기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깨뜨리면 큰 낭패란다.”

지난 번에는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 행동을 고치도록 하는 나 전달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즉 자녀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게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해 내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자녀에게도 나를 알릴 수 있게 되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녀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킬 때 자녀를 비난하지 않고 부모의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행동을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다음의 세가지 요

이를 나 전달법의 3요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나)가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옆에서 피아노를 짱 짱 두드려 전화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의 경우에 나 전달법의 3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문제행동은 ‘피아노를 시끄럽게 친다’입니다.
2. 내가 받는 영향은 ‘전화 소리가 잘 안들린다’입니다.
3. 나의 느낌은 ‘속상하고 화가 난다’입니다.

위의 경우 “아, 시끄러! 그만 두지 못해!” 하면 아이는 “엄마는 괜히 신경질이야.” 하며 속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나 전달법의 대화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니가 피아노를 시끄럽게 치니 엄마가 전화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속이 상하네.”

# 고졸 유망직종 많다

지난 94년 7월부터 연재해 온 미래의 유망직업을 정리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취업자들이 진출해 성공할 수 있는 유망전문직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진출 가능한 유망직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직업평론가 김봉주씨는 대학입시에 실패했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95 미진학 청소년의 직업찾기 전략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서에서 따르면 고졸 청소년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7가지.

우선 지방자치단체 산하 직업훈련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입사하는 방법을 비롯, △사설학원에서 기술습득 후 입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입교, 기능사가 되어 취업 △고교 2학년 때 학교장 추천으로 1년간 직업학교에서 기술을 배운 뒤 입사 △기업체부설 직업훈련프로그램에서 배운 후 그 분야로 취업하는 방법 △고등학교 졸업후 희망분야의 고졸공채 회사에 취업 △외국의 기능전문교육기관에 유학, 공부를 마친 뒤 귀국해 입사하는 방법 등이다.

미래사회는 학벌보다 능력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될것인 만큼 전문기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고졸자들을 위한 유망직종 100가지를 소개한다.

- |  |   |   |
|--|---|---|
| 가구디자인<br>미용사<br>자동차정비기능인<br>석공기능인<br>기계편물기능인<br>7.9급공무원<br>정보처리전문가<br>컴퓨터산업디자인<br>오프셋인쇄기능인<br>의상디자인<br>축소사진기능인<br>양복재단기능전문인<br>제과기능인<br>광고도장기능사<br>목공예기능전문인<br>항공전자정비기능인<br>유리제조기능인<br>컴퓨터에디터<br>영사기능전문인<br>프레스금형기능전문인<br>중기차체정비기능인<br>기계제도기능인<br>섬유기능전문인<br>전동설비기능인<br>의류패턴기능인<br>사진사<br>어류경매인<br>도자기공예기능전문인<br>영림기능인<br>원예종묘기능전문인<br>식물가공기능전문인 | 제강기능전문인<br>관광종사원<br>컴퓨터그래픽기능인<br>스크린인쇄기능인<br>만화가<br>배관설비기능인<br>정밀기계전문인<br>금속도장전문인<br>섬유공예전문인<br>간호조무사<br>고전의상디자인<br>조리사<br>철기기능인<br>온수온돌기능인<br>파수재배기능전문인<br>신발류제조기능인<br>보석가공전문인<br>양장봉제기능전문인<br>전파통신기능인<br>컴퓨터오퍼레이터<br>전기도금기능인<br>컴퓨터오퍼레이터<br>전기도금기능인<br>호텔 GRO<br>유통판매전문인<br>무선설비기능인<br>컴퓨터음악전문인<br>의류기능전문인<br>경마기수<br>연예이벤트기획인<br>인장공예전문인 | 잠수기능사<br>채소재배기능전문인<br>한복기능전문인<br>제직기능전문인<br>애니메이션전문인<br>게임디자인<br>패션디자인<br>사진제판기능인<br>도배기능인<br>타일기능인<br>고압가스기계전문인<br>실내디자인<br>보일러시공기능사<br>세탁기능사<br>용접전문인<br>조화공예기능인<br>피아노조율기능인<br>조주(造酒)기능인<br>표구기능전문인<br>도자기공예전문인<br>항공장비정비기능인<br>정보통신운용기능인<br>선로설비기능인<br>열처리기능전문인<br>고압가스냉동기계전문인<br>전자계산기기능인<br>금형공구기능인<br>소방설비전문기능인<br>냉동기계기능인<br>송배전설비기능인 |
|--|---|---|

<이정진 기자>

## 여름 캠프 안내

종류	행사 이름	주최	기간	대상	장소	참가비	종류	행사 이름	주최	기간	대상	장소	참가비
답사	나라사랑 어린이 국토순례	홍사단 (747-7685)	8.1~5	국교생 3백명, 중학생 50명	포항, 경주, 울산, 부산	13만6천원	과학	에디슨과학캠프	한국사회체육센터 (482-1105)	7.22~24 7.31~8.2	국교생 150명	천마산리조트	9만5천원
	기차여행캠프 1	YMCA종로회관(723-6730)	7.25~28	국교4~6 120명	중앙선일대	12만원		해양생물 조사캠프 1	"	7.21~23	국교3~6 120명	충남안지도청소년수련원	9만9천원
	기차여행캠프 2	"	8.1~4	"	부여·변산반도	"		어린이 과학캠프	대교(528-0074)	7.20~30 (2박3일, 총5차)	국교생	평택 어린이농원	7만3천원
	청소년엠티기행캠프	"	8.2~5	국교6~고2 80명	태백·강릉	10만원		어름방학 과학캠프	어린이회관(453-8037)	8.1~4 8.8~11	국교생	어린이회관 근화원	7만6천원
	역사기행캠프	YMCA영등포지회(675-7776)	7.18~20	국교3~6 40명	춘천	7만8천원		스포츠	어린이 탐험캠프	한국사회체육센터 (482-1105)	7.24~26 8.3~5	국교3~중1 120명	산정호수 유스타운
	문화유산답사 여름캠프	중앙문화센터 (744-4412)	7.24~27	국교4~중3 40명	경주	13만원	해양탐험캠프		안산 YMCA (0345-410-3570)	8.12~14	국교생 80명	강원도송지호 해수욕장	8만원
	「까지」자연캠프	웅진출판사 (762-9398)	7.20~22 7.24~26	국교3~6 320명	강원도정선 아우라지농원	9만8천원	동굴탐사캠프		"	7.20~22	국교3~6 80명	단양 영월 석회암동굴	8만원
	휴전선 통일기행	신들메 (703-8210)	7.9	"	경기도 연천·전곡	2만원~3만원	스킨다이빙캠프		YMCA체육교육부(735-4612)	7.28~31	국교3~고 40명	강원도송지호 해수욕장	9만원
	휴전선 답사	경실련 (766-5390)	7.8~9	"	강원도 양구·홍천	5만7천원	탐험대캠프		YMCA영등포지회(675-7776)	8.1~4	국교4~중2 40명	거제군 녹도	5만5천원
	한국석조 미술사기행	"	7.15~17	"	경주 남산	7만8천원	스포츠캠프	YMCA동대문지회(246-1281)	8.5~8	국교생 40명	산정호수 유스타운	8만원	
태백산맥 오지여행	두레문화기행 (712-5812)	8.13~15	"	태백산맥	12만2천원~13만2천원	문화	어린이영화만들기캠프	YMCA종로회관(723-6730)	7.26~29	국교4~6 80명	대관령 삼양사목장	12만원	
영일만 문화유산기행	"	7.28~30	"	영일만	12만5천원~13만5천원		꾸러기글짓기캠프	"	8.2~5	국교생 120명	남이섬캠프장	9만3천원	
강원도도종기행	누리알 (735-9861)	7.15~17	"	강원도 횡성	7만8천원		눈놀이미술캠프	대교 (528-0074)	7.19~22	국교4~중1	천마산스키장	30만원	
담양정자기행	"	7.29~30	"	담양	5만7천원								

# 학부모, 자녀 위한 7월 행사 안내

## 월례회

### 서울지부

**강서남부지회**  
가족신문만들기 (강사:곽정란)  
• 일시:7월20일 10:30~12  
•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 문의:634-6508

**관악동작서초지회**  
동화읽기 소모임 꾸러온 경험  
들려주기 (강사:윤지희)  
• 일시:7월13일  
• 장소:방배동 청소년학회  
• 문의:634-6508

**중서부지회**  
책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지도법 (강사:김병숙)  
• 일시:7월18일  
•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 문의:634-6508

### 인천지부

**제2회 자연학습**  
• 일시:7월20일 10:00  
• 장소:남동 정수장 견학  
• 대상:초·중학생, 학부모  
• 문의:032) 525-8342

**상반기 총회**  
-신입회원과의 만남  
• 일시:7월24일 10:00  
•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 문의:032) 525-8342

### 대구지부

**부모역할훈련**  
• 일시:7월12일, 26일 10:00  
• 장소:우방APT 최정숙씨 덕  
• 문의:053) 781-3911

### 부산지부

**중학생 및 진로지도**  
• 일시:7월8일, 22일 3:00  
• 장소:양정동 전교조 강당  
• 대상:중1~3  
• 문의:051) 247-1795

**이리지회**  
회원만남의 날-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토론회  
• 일시:7월19일 10:00  
•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 문의:0653) 856-0340

**전주지회**  
전주지회연수  
• 일시:7월13일 10:00~4:00  
• 장소:이재천씨 덕  
• 문의:0652) 231-6242

**여천지회**  
생활체조교실  
• 일시:7월 매주 목요일  
10:00~12:00  
•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열린교실)  
• 문의:0662) 84-5116

• 내용:모듬빛깔내기, 자연탐색,  
인간관계훈련, 동아리활동  
• 일시:7월25일~27일  
• 장소:밀양 표충사  
• 대상:국교1~3  
• 회비:60,000  
• 문의:051) 247-1795

**울산지회**  
제13회 어린이 역사기행  
• 일시:8월7일~9일  
• 장소:부석사, 소수서원,  
도산서원, 안동댐,  
하회마을, 병산서원  
• 문의:0522) 46-0677

**전주지회, 이리지회**  
제3기 숲속학교  
함께 만드는 민주사회  
• 일시:7월31일~8월2일  
• 장소:고산 비봉 자연학습관  
• 대상:국교3~6 (80~100명)  
• 문의:전주-0652) 231-6242  
이리-0623) 856-0340

## 여름방학 프로그램

### 서울지부

**별자리 관측**  
• 일시:7월 25일 7:30~10:00  
• 장소:방배동 천문우주기회  
사무실  
• 대상:국민학생  
(학부모 참여 가능)  
• 문의:634-6508

**강서남부지회**  
• 내용:독서방, 종이접기,  
글쓰기  
• 일시:7월25일~8월22일  
매주 화요일  
10:00~12:30  
•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 대상:독서방-유치원~국교6  
종이접기, 글쓰기-어린이  
• 회비:12,000  
• 문의:634-6508

**관악동작서초지회**  
• 내용:학부모대상 글쓰기,  
독서지도 (강사:이주영)  
• 일시:7월18일, 22일 10:00  
• 장소:방배동 청소년학회  
• 회비:10,000  
• 문의:634-6508

**중서부지회**  
인형극반 모집  
• 내용:탈만들기, 동화읽고  
토론하기, 극본만들기,  
연습, 무대에 올리기  
(강사:김지혜, 최민자)  
• 일시:7월 31일까지 접수  
•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 대상:국교3~6  
• 문의:634-6508

**부산지부**  
제5회 어린이 숲속학교

## 가족이 함께 볼만한 비디오

**비밀의 확일**  
아그네스카 홀랜드 감독  
케이트 메이벌리,  
에이드 프로듀즈 출현  
[소공자] [소공녀]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여류작가  
프란시스 호드그스 버넷이 집  
에서 화원을 손질하다 영감을 얻  
어 썼다는 동명의 동화를 영화  
화했다. 감독은 폴란드의 안제  
이 바이다의 대표작인 [아이 윈  
트유] [대리석 인간] [철의 인  
간] [당통] 등의 각본을 썼던  
아그네스카 홀랜드,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가 제작을 했고 음  
악은 크지쉬토프 키에슬롭스키  
의 콤비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즈비그뉴 프라이스너.  
어린이들의 맑은 심성과 아름  
다운 꽃의 정원, 마음을 따사롭  
게 해줄 반짝이는 동화다.

**프리 윌리**  
사이몬 윈서 감독  
제이슨 제임스 리처,  
로릴 페티 출연  
어마에게조차 버림받은 소년  
제시와 문제 고래로 낙인 찍힌  
고래 윌리와 우정을 다룬 영  
화. 수족관장은 윌리를 죽여 보  
험금을 타려는 음모를 꾸미고

이것을 알게 된 제시는 목숨을  
걸고 윌리를 탈출시키려 결심하  
는데...

**길버트 그레이프**  
라세 할스트롬 감독  
조니 덴, 줄리엣 루이스 출연  
[개같은 내 인생]의 후속편이  
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인간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  
다. 5백 파운드의 엄청난 몸무  
게를 가진 어머니, 정박자인 18  
세의 동생 그리고 누나 에이미  
를 부양해야 하는 길버트의 힘  
겨운 삶의 한가운데로 소녀가  
꺼어드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짐 웨리던 감독  
피트 포스트트웨이트,  
다니엘 데이 루이스 출연  
영국과 아일랜드 민족해방 국  
가간의 갈등 속에서 식당 테러  
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15년이라  
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한  
청년의 실화극. 정치적 음모로  
인해 어떻게 한 인간, 가족의  
삶이 파괴될 수 있는가와 그 속  
에서 개인의 용기에 대해 생각  
하게 해주는 영화이다.

전주지회 이재천씨 시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 여름 어린이 자연학교

## 강화도의 역사와 갯벌을 찾아서

**일시:** 8월17일~19일 (17일 9시 동대문 운동장 앞 출발)  
첫째날-강화도 유적지 답사, 모듬짜기  
둘째날-갯벌생태계, 들꽃관찰, 별자리관측, 대동놀이  
셋째날-마니산 등반, 수영놀이  
**접수:** 회원은 7월 10일까지 (신문발송이 늦어 7월 10일  
이후에 받으신 분은 바로 신청바람)  
전화신청 후 입금하시면 입금 확인, 접수 됩니다.  
**문의:** 634-6508 홍수영  
**계좌번호:** 중소기업은행 140-017484-02-020 홍수영  
**회비:** 회원 55,000 비회원 60,000  
**주최:** 참교육 학부모회 서울지부, 전교조 초등지회

###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이오덕 · 권정생 · 위기철 · 신경림 · 이현주 · 윤기현 · 지동환 · 강정규 · 이재복 · 임길택

##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교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는 그 동안 서울 YWCA, 서울 YMCA, 문화체육부, 어린이도서연구회, 국립중앙도서관, 미산 YWCA, 좋은 책 만들기 운동 연합회, 창원 YWCA, 군산 YMCA, 어린이 문화 진흥회,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 ▶ 생애이야기

-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 11 차돌이는 한결바사 김연아
- 16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 18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한 교실 어린이
- 29 통일은 참 쉽다 동시 · 동화
- 34 혼자서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35 날마다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36 민요기행 신경림
- 41 나뭇잎 교실 윤대규
- 51 천연 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일덕연
-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74 짚짜기 우리 악기 배워보세 신장석

#### ▶ 산하어린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연구소

- 81 산하어린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연구소
- ▶ **과목이야기**
-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창영
- 62 끈질기게 풀고 놀아낸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3 끊임없이 퍼고른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4 악착같이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 **역사이야기**
- 2 연오랑 세오녀 조소상
- 3 4 5 임궫성과 임궫성애들 1·2·3 김우일
-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봉기
- 52 53 보마 단군 1·2 정우상
-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몽이 1·2·3 김경민
- 68 얼싸구 국어이야기 읽어보세 김태균

#### ▶ 신기한 세계여행 김운정

- 85 신비한 지구탐험 김운정
- ▶ **인물이야기**
- 7 전태일 위기철
- 33 윤동주 정진규
- 49 신채호 김서경
-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선주
- ▶ **장작동화**
-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8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목
- 9 허느님의 눈물 권정생
-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 13 산사는 교실 윤대규
- 14 비보와 비보 박상규

#### ▶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 19 말꼬마이 이상권
- 20 하루나라 허무왕 이준연
- 21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 23 카디리 흥신 장수 어찌씨 유재용 · 이현주 외
- 24 도둑 마을 장문선
- 25 최초의 훈장 윤기현
-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윤순하
- 27 아기 장수 조소상
- 28 고독한 가수와 보미배우 이상권
- 30 삼마를 아이들 신승명
-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대규
-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 44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 ▶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 46 적다고 말보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 48 김철지의 매주풍 이재복
- 54 팔죽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 55 사장이 된 불행장수 박상규
-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 57 허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오 권정생
- 65 파리 부는 소년 이주홍
-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욱
- 68 늑대를 아이들 임길택
-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 75 배비 깨비 함도깨비 김종태
- 76 원동이의 검둥이 이오덕 · 권정생 외
- 77 벼두산 산삼과 매산이 이야기 동태

#### ▶ **산하어린이** 81

###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재미있는 이야기가 달력처럼 짜여 있는 이야기 달력

책을 펼치면 달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달력으로 새로운 놀이 · 공부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달마다, 학기마다, 학년마다 알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문제연구소의 글 / 최미숙 그림 / 값 4,000원

### 도서출판 산하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10  
TEL 392-7641 FAX 313-2582